

1 1

2022

제213호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1. 대내외 정세 1

- o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o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 방우
- o 제1차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정상회의(사마르칸트市) 개최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법 분야 주요 과제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오드레 아줄레 UNESCO 사무총장과 협력 현황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오딜 르노-바소 EBRD 총재와 협력 확대 전망 논의
- o 'EU-중앙아' 외교장관회의(사마르칸트市) 개최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 o 누쿠스 소요사태 관련 재판 개시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2. 경제·산업 동향 5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경제 분야 지원 제도 현황 점검
- o 우즈베키스탄-유럽연합(EU), 무역·경제 협력 심화 방안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제2차 국제경제포럼(사마르칸트市) 화상 연설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향후 산업 발전 방안 논의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3년까지 對유럽 수출 7억불 달성 지시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논의
- o IMF,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6% 전망
- o 2022.1~10월 대외교역 401억불 기록
- o 거시경제전망연구소(IFMR), 외국투자기업의 우즈벡 경제 발전 기여도 분석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전기차 분야 발전 방안 논의
- o 우즈벡중앙은행(CBU), 2023-2025 경제 발전 시나리오 발표

3. 에너지·인프라 동향 9

- o 우즈베키스탄-중국, 화학 및 가스 화학 협력 협정 체결
- o 탈리마잔 2단계 화력발전소 용량 900MW로 확대
- o Enter Engineering, MTO 가스화학단지 건설 EPC 계약자로 지정
- o 우즈베키스탄, 에어버스(프랑스)에서 8억 유로 규모 항공기 17대 구매
- o UAE 기업, 나보이 공항 화물 터미널 및 경제자유구역(FEZ Navoi) 관리 예정
- o 에너지부, 총 1,474MW 규모 신규 발전소 7개 가동 착수
- o 푸틴 대통령,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자 가스동맹 제안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내외 정세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12.19.(월) 12:00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248,222명(완치 241,504명, 사망 1,637명)
- 12.1.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1.25.(금) 일일 확진자는 124명으로 153일만에 세 자리 수 기록

□ 안나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방우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 11.1.) 양측은 최근 양국 간 비즈니스, 문화, 교역, 투자, 기술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주요 협력 방향으로 △녹색경제, △대체 에너지, △혁신, △절약 및 친환경 기술 등 언급 / 배어복 장관은 New Uzbekistan의 민주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 재확인
- (노로프 외교장관 접견, 11.1.) 양측은 △고위급 상호 방문 및 교류 지속, △분야별 공동 행사 개최, △우즈벡 제품의 독일 시장 진출 등 무역·경제 협력 확대, △우즈벡 국가인권센터와 독일인권연구소 간 대화 구축 등 인권 분야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 포함 국제, 지역 현안 논의

□ 제1차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정상회의(사마르칸트市) 개최

- 11.1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 회의 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튀르크 세계 비전 - 2040’ 컨셉 시행, △OTS 5개년 전략 추진, △동 기구 권위 강화, △역내 협력 발전 등 우즈베키스탄의 의장국 활동 목표 언급
※ 동 회의에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의장,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 참석
- 또한, 무역, 투자, 교통 등 분야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내 다자간 협정 채택, △혁신, 첨단기술 등 도입 가속화를 위한 OTS-UN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간 파트너십 구축, △‘튀르크 농업 포럼’ 정기 개최 등 제안

- 향후 동 기구의 우선과제로 △청년세대 지원, △안보 보장, △아프가니스탄 상황 안정화 등 언급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법 분야 주요 과제 논의

- 11.1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합법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제 및 기업 발전, 평등사회 구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향상 강조 / 향후 사법기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판사 임기 연장, △급여 인상, △역량 강화, △사법부 권한 강화 등 방안 마련 지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UNESCO 사무총장과 협력 현황 논의

- 11.15. 양측은 △우즈베키스탄-UNESCO 간 공동 프로젝트 시행, △우즈베키스탄의 UNESCO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 △우즈베크 전통 예술 ‘Bakshy’ 및 춤 ‘Lazgi’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등 협력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UNESCO 사무총장은 제1차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참석차 타슈켄트 방문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오딜 르노-바소(Odile Renaud-Basso) EBRD 총재와 협력 확대 전망 논의

- 11.16. 양측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체제 도입, △에너지, 교통·물류, 보건, 교육, 주택 등 분야 프로젝트 시행, △녹색성장, 여성 및 청년 사업가 지원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 방안 논의

□ ‘EU-중앙아’ 외교장관회의(사마르칸트市) 개최

- 11.17. 노로프 외교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 △‘Erasmus+’,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 분야 협력 활성화, △22.7월 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중앙아 녹색 의제’ 프로그램에 EU의 적극적 참여, △중앙아-EU 간 무역, 경제, 교통, 통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제안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 (레미 르오우(Remy Riou) 프랑스개발청장 접견, 11.21.) 양측은 프랑스개발청이 시행 중인 우즈베크 인프라, 경제, 사회 발전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 의료, 인프라 분야에 효율적인 PPP 메커니즘 도입, △교통, 에너지 분야 ‘녹색 경제’

프로젝트 지원, △농업단지 구축 지원, △여성 및 청년 기업인 지원 프로젝트 추진, △프랑스 기업 및 투자 유치 확대 등 중요성 강조

※ 동 면담 계기 우즈벡 정부와 프랑스개발청 간 10억 유로 규모 전략적협력프로그램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에너지, 녹색경제, 도시발전, 교통, 금융 등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

- (프랑스 기업 및 금융인 초청 간담회, 11.2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외환 자유화, △은행 및 산업·인프라 시설 민영화, △PPP 사업 도입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제상황 하에 상호 이익 및 신뢰를 기반으로 다각적, 건설적 파트너십 강화 중요성을 강조

※ 동 행사에 MEDEF, Airbus, Orano, Suez, Alstom, Total Eren, EDF 등 프랑스 기업인 참석

- (야엘 브라운-피벳(Yael Braun-Pivet) 하원의장 접견, 11.22.) 양측은 △의회 간 협력 강화, △유엔인권이사회,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발전, △우즈벡 개헌 관련 지원 방안 등 논의

- 브라운-피벳 하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민주주의 발전, △인권 및 자유 보장, △성평등 촉진 등 대규모 개혁을 높이 평가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예방, 11.22.) 양측은 △정치적 교류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 지원, △의회 간 교류 촉진, △합작기업 및 투자 프로젝트 수 증가 등 양국 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안보 분야 내 양자 협력 강화, △루브르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우즈벡 문화·역사 유산 전시회 등을 통한 문화 교류 활성화, △교육 협력 발전 방안 등 논의

※ 양국 정상은 22.11.23.~23.3.6. 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The Splendors of Uzbekistan's Oases. At the crossroads of caravan routes"제하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방문

□ 누쿠스 소요사태 관련 재판 개시

- 11.28. 부하라州지방법원은 22.7.1-2. 누쿠스(카라칼팍스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관련 형사 재판을 시작하였으며, 동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hooliganish), △헌법 질서 침해, △대규모 폭동, △총기, 탄약, 폭발물 등 불법 소지 등 총 11개 조항에 따라 22명 기소되었다고 발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 11.30. 양측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정상 간 합의사항 시행, △교역량 증대 등 협력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2.1-2. 양국 총리급 공동위원회 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사마르칸트市)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 표명

o 또한, 중앙아 내 다자 간 실질적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 정부 행사 일정 등 검토

※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11.29.)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의 방러 계기 '삼자 가스 연합'(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2. 경제·산업 동향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산업생산(조숨) : ('21.10월) 356.1 → ('22.10월) 439.9(5.4%)('21년: 451.6)
- 소매판매(조숨) : ('21.10월) 189.9 → ('22.10월) 243.7(11.7%)('21년: 249.5)
- 물가(CPI)(%) : ('21.10월) 10.6 → ('22.10월) 12.2(전월비 △1.2%)('21년:9.98)

■ 대외교역 (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총 교역액(억불): ('21.10월) 328.2 → ('22.10월) 401(22.2%)('21년:451.6)
※ '22.10월(억불): 교역 401(22.2%), 수출 154.8(23.8%), 수입 246.2(21.2%), 수지 △91.4
- 對한 교역(억불): ('21.10월) 15.3 → ('22.10월) 19.8(29.6%)('21년:18.9)
※ '22.10월(백만불): [우통계] 교역 1,976.7(29.6%), 수출 41.6(△2.1%), 수입 1,935.1(30.5%), 수지 △1,893.5
[韓통계] 교역 1,840(20.1%), 수출 24(30.5%), 수입 1,816(20%), 수지 △1,792
*출처: 한국무역협회

■ 금융·외환 (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중앙은행

- 기준금리(%) : ('21.11월) 14.0 → ('22.11월) 15.0(1%p)
※ 20.9월 이후 14%를 유지, 러-우 사태 이후 22.3.17. 17%로 인상 → 22.6.10. 16% → 22.7.22. 15%로 인하
- 숨/달러 환율 : ('21.11월) 10,787 → ('22.11월) 11,212.9(절상률 3.9%)('21년末:10,837.6)
- 외환보유고(억불): ('21.11월) 352.1 → ('22.11월) 323.2(금보유량 210.1)('21년末:351.4)
- 대외채무(억불) : ('22. 4월) 388(국가채무 234)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경제 분야 지원 제도 현황 점검

- 11.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 소득 증가를 목표로 실시 중인 기업인 대상 물류비, 국제인증 관련 비용, 보험비 등 지원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51조숨 규모로 시행된 동 제도의 성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언급
- 또한, 총 127가지 중 15가지 지원금 비활성화, 분야별 성과 불균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 지시

□ 우즈베키스탄-유럽연합(EU), 무역·경제 협력 심화 방안 논의

- 11.1. 쿠드라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제1차관은 샬롯 아드리안(Charlotte Adrian) 주우즈베키스탄 유럽연합 대사와 △GSP+ 시스템을 통한 양자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확대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EPCA) 체결, △교역량 증대 방안 등 논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경제개혁의 중심에 선 사람들' 제하 제2차 국제경제포럼 (사마르칸트市) 계기 화상 연설

- 11.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문제, △기후변화, △팬데믹 여파, △세계경제 위기 등 인류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 속에서 공동 방안을 위한 동 포럼의 역할을 강조하고 2022-26년도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인적자원 개발, △빈곤감소 달성 목표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
 - ① 경제 내 민간 분야 활성화, 기업 지원, 투자 및 경쟁 환경 개선, ②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마할라(mahalla; 지역공동체) 인프라 개선, ③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 ④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및 인플레이션 억제, ⑤자원절약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시스템 구축과 식량안보 보장, ⑥무역·경제, 투자, 교통, 물류 협력 확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향후 산업 발전 방안 논의

- 11.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국내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인증서 취득 지원, △섬유제품 생산 현지화 강화, △섬유제품 수출 50억불 이상 달성, △건축자재 생산 기업 지원 확대, △지역별 산업구역 및 클러스터 구축, △가구제조업체 대상 관세 혜택 확대 등 지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3년까지 對유럽 수출 7억불 달성 지시

- 11.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가입과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對유럽 수출 품목은 32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제인증서 미비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23년까지 △수출 품목 600개, △수출액 7억불 달성 지시

※ GSP+에 포함된 면세품목은 6,200개

- 11.29. 노로프 외교장관은 △GSP+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對유럽 수출 증대 등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주재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한 실무그룹 구성, 로드맵 개발 등 합의

※ 동 회의에는 유럽국가 주재 대사들, 상공회의소, 섬유공업성, 기술규제청 등 참석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논의

- 11.15.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우선 방향으로 비즈니스 발전을 강조하고 △비즈니스 활동 관련 절차 간소화, △법인의 급여, 소득, 세금 등 관련 서류 보관 의무 폐지, △분기별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폐지 등 향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논의

□ IMF,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6% 전망

- 11.16. IMF는 △러-우 사태, △국제 가격 인상, △국제금융시장 내 긴축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對우즈벡 해외송금액 증가, △재정 지원 정책 지속, △대외교역 활성화 등에 따라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6%, △인플레이션 12%, △재정수지 적자 GDP의 4% 등으로 전망

※ 주요 기관별 2023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IMF 4.8%, WB 4.9%, ADB 5%, EBRD 6.5%

- 또한, 우즈벡 정부의 △민간 분야 역할 강화 등 시장 구조 개혁, △국영 기업 및 은행 민영화 지속, △평등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 조성, △조세 및 관세 행정 등 국가서비스 디지털화 확대, △WTO 가입 가속화,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 △거시경제 정책 및 개혁 지속 등 노력을 감안하여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

□ 2022.1~10월 대외교역 401억불 기록

- 11.22.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2.1~10월간 우즈베키스탄의 △총 교역은 전년동기비 22.2% 증가한 401억불, △수출은 23.8% 증가한 154.8억불, △수입은 21.2% 증가한 246.2억불, △무역수지는 91.4억불 적자 기록
- 국가별 교역규모는 1위 중국(18.7%), 2위 러시아(18.6%), 3위 카자흐스탄(9.3%), 4위 튀르키예(6.7%), 5위 한국(4.9%) 등

□ 거시경제전망연구소(IFMR), 외국투자기업의 우즈벡 경제 발전 기여도 분석

- 11.22. 거시경제전망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즈벡 내 외국투자기업은 △생산 부문 15%, △투자 부문 24%, △고용 부문 6%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역할과 의미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인 경제 주체라고 평가

※ 우즈벡 정부는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 전략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700억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

※ 22.11.1.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 중인 외국자본참여기업 수는 15,153개

- 또한 對우즈벡 주요 투자국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독일, 한국이며, 외국투자기업의 주요 활동 분야는 산업(30.6%), 서비스(28.5%)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전기차 분야 발전 방안 논의

- 11.2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기차 분야 발전을 위해 △전기차 대중화, △전기차 구매 촉진, △전기차 대출 관련 지원 확대, △전기차 구매 법인 지원 마련, △전기차 분야 인력 양성, △투자 유치 확대, △전기차 및 부품 생산 관련 국제표준 도입 등 지시
- ※ 22.10.1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 △부품 생산 현지화, △해외 기업과 전기차 생산 합작사 설립, △전문가 양성 등 동 분야 발전 중요성 강조

□ 우즈벡중앙은행(CBU), 2023-2025 경제 발전 시나리오 발표

- 11.28. 우즈벡중앙은행(CBU)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주요 원자재 가격 인하, △물류 및 공급망 붕괴, △개혁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하여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5.2~5.8%, △인플레이션 12~12.5%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두 가지 2023-2025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시나리오를 발표
- 제1 시나리오: △석유, 금, 식품 등 가격 하락, △환율 약세, △해외송금액 감소, △해외직접투자 증가, △전기 및 가스비 시장 가격화,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등에 따라 2023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4.5~5%, △인플레이션 8.5~9.5%, △수출액(금 제외) 13~17% 증가 등 전망
- 제2 시나리오: △국제 가격망 붕괴, △세계 불황 위험성 증가, △석유가 폭락, △주요 교역국 환율 폭락, △해외송금액 급감 등 제1 시나리오보다 악화된 조건에 따라 2023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3~3.5%, △인플레이션 7~8%, △수출액(금 제외) 7~8% 증가 등 전망
- 우즈벡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성 지속과 포용적 경제 성장 달성을 강조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주요 에너지통계

■ 에너지 생산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전력(십억kWh):('21.10월) 57.2 → ('22.10월) 58.1(1.5%) ('21년: 70.1)
- 가 스(bcm):('21.10월) 44.2 → ('22.10월) 43.8(△1%) ('21년: 53.8)
- 석 유(천톤):('21.10월) 1,730 → ('22.10월) 1,724(△0.3%)(※가스콘덴세이트 포함) ('21년: 2,098)
- 석 탄(천톤):('21.10월) 4,156 → ('22.10월) 4,381(5.4%) ('21년: 5,054)

■ 에너지 가격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전기)우즈베크국가전력망공사, (가스/가솔린/디젤)우즈베크석유가스공사

- 전 기(UZS/kWh):('21.11월) 450 → ('22.11월) 450(0%) (※산업용) ('21년: 450)
('21.11월) 295 → ('22.11월) 295(0%) (※가정용) ('21년: 295)
- 가 스(UZS/m³):('21.11월) 1,000 → ('22.11월) 1,000(0%) (※산업용) ('21년: 1,000)
('21.11월) 380 → ('22.11월) 380(0%) (※가정용) ('21년: 380)
- 가솔린(UZS/ℓ):('21.11월) 10,000 → ('22.11월) 10,500(5%) (※Ai-95 기준) ('21년: 10,200)
- 디 젤(UZS/ℓ):('21.11월) 9,500 → ('22.11월) 12,400(30.5%) ('21년: 9,500)

□ 우즈베키스탄-중국, 화학 및 가스 화학 협력 협정 체결

- 11.7. 미르자마흐무도프(Mirzamakhmudov)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과 웬 강(Wen Gang) 중국화학공정총공사(CNCEC : The China National Chemical Engineering Corporation) 사장은 화학 및 가스 화학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발전을 위한 협정 체결
 - 현재 중국화학공정총공사 산하의 제7 건설회사는 △암모니아 및 요소 생산, △MTP(Methanol-to-Polypropylene)단지 건설, △MTO(Methanol-to-Olefin) 가스화학단지 건설, △폴리부틸렌 디프테레프탈레이트(PBAT) 생산 등 프로젝트 시행 중
 - ※ '22.9.16. 사마르칸트 SCO 정상회담 계기 Uzkiymyosanoat(우즈베크화학산업공사)와 중국화공공사(CNCEC) 산하 제7 건설회사는 총 규모 80억불 프로젝트 공동 시행 계약 체결
- 에너지부는 중국 측에서 △재생 가능한 녹색에너지 개발, △산업의 탈탄소화, △정화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발표

□ 탈리마잔 2단계 화력발전소 용량 900MW로 확대

- 11.14. 탈리마잔 화력발전소와 인텍사(INTECSA Ingeniera Industrial S.A., 스페인) 및 미쓰비시(Mitsubishi Corporation, 일본)는 탈리마잔 화력발전소에 900MW 규모의 새로운 복합 사이클 발전소 2기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
 - 동 프로젝트는 터키 방식으로 시행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연간 72억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사마르칸트州 및 부하라州 소비자에게 공급될 것이며 신기술 적용으로 5.2억m³ 천연가스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
 - ※ '22.9.9.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Mubadala 및 TAQA(UAE)는 탈리마잔 화력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합작 투자회사 설립했으며, 현대화 사업비 10억불

□ Enter Engineering, MTO 가스화학단지 건설 EPC 계약자로 지정

- 11.17. MTO(Methanol-to-Olefin) Gas Chemical Complex Central Asia LLC(MTO 가스화학단지 건설회사)는 동 건설 프로젝트의 EPC 계약자로 Enter Engineering Pte Ltd를 지정했다고 발표
 - MTO 가스화학단지는 부하라州 카라쿨(Karakul)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 민간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인 산업에너지 그룹(Sanoat Energetika Guruhi LLC)이 전액 출자
 - ※ MTO 가스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30억불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에어버스(프랑스)에서 8억 유로 규모 항공기 17대 구매

- 11.2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계기 마흐카모프(Makhkamov) 교통부 장관과 자크 가리그(Jacques Garrigue) 에어버스(Airbus International)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회장은 에어버스와 우즈베크 항공(Uzbekistan Airways)간 구매 계약을 체결
 - 동 계약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에어버스로부터 6.9억 유로 상당의 A320neo 항공기 8대와 A321neo 항공기 4대, 2천만 유로 상당의 H145 헬리콥터 2대, 1억 유로 상당의 ATR 72-600 항공기 5대를 구매 예정
 - 또한, 에어버스는 우즈베키스탄에 헬리콥터 수리를 위한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 비용은 1천 4백만 유로로 추산

□ UAE 기업, 나보이 공항 화물 터미널 및 경제자유구역(FEZ Navoi) 관리 예정

- 11.25. 투자대외무역부는 나보이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관리 이행

협약을 DP World 및 Terminals Holding(UAE 기업)과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 체결식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 DP World, Terminals Holding 대표 등이 참석

- 이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 및 물류 회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세계 우수기업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및 물류 회랑 구축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해 우즈베크의 수출 잠재력을 3~4배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 DP World는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운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제법 규범을 적용하고 대형 제조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며, Terminals Holding은 나보이 공항 화물 터미널의 회전율을 높이고, 대형 화물 허브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터미널을 관리할 계획

□ 에너지부, 총 1,474MW 규모 신규 발전소 7개 가동 착수

- o 11.25. 우즈베크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1~11월에 총 1,374MW 규모 화력발전소 6개와 100MW 규모 태양광발전소 1개가 가동되었으며, 상기 7개의 발전소에서는 연간 총 113억k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참고 : ‘21년 연간 생산량 - 약 700억kWh)

(1) 가스화력발전(6곳)

- 부하라州 Bukhara 270MW (튀르키예 Aksa Enerji, '22.1월 가동)
- 호레즘州 Yangiariq 174MW (튀르키예 Odas Enerji, '22.3월 가동)
- 타슈켄트州 Kibray 240MW(1)(튀르키예 Aksa Enerji, '22.1월 가동)
- 타슈켄트州 Kibray 240MW(2)(튀르키예 Cengiz Energy, '22.3월 가동)
- 타슈켄트州 Kibray 230MW(3) (튀르키예 Aksa Enerji, '22.4월 가동)
- 시르다리아州 Khavast 220MW (튀르키예 Cengiz Enerji, '22.11월 가동)

(2) 태양광발전(1곳)

- 사마르칸트州 Solar 100MW (프랑스 Total Eren, '22.5월 가동)

□ 푸틴 대통령,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자 가스동맹 제안

- o 11.29. 토카예프(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크렘린(Kremlin)에서 개최된 러시아-카자흐스탄 정상회담 후 미하일 미슈스틴(Mishustin)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삼자 가스 연합을 지지한다고 언급
- o 한편, 12.07. 미르자마흐무도프(Mirzamakhmudov)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국내 수요 충당 및 소비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크는 '일종의 동맹이나 연합'이 아닌 이웃 국가로부터 가스·전기 수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상업적 계약, 판매 및 구매를 기반으로 한 협상이라고 강조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²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527만명 (2022.1월 기준)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지크 9.5백만, 키르기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0) 599.3억불 → (2021) 678억불

○ 1인당 GDP : (2020) 1,767불 → (2021) 1,983불

○ 실질성장률: (2020) 1.7% → (2021) 7.4%

■ 교역현황 :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2021년 수출입 : 수출 166억불(10%), 수입 255억불(20.4%), 무역수지 △89억불

※ 교역순위(억불): ①러시아(75.2), ②중국(74.4), ③카자흐(39.1), ④터키(33.9), ⑤한국(18.9)

■ 경상수지 : (2020) △31.4억불 → (2021) △46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3,289개 (2022.1.1. 기준)

※ 국별순위: ①러시아 2,309개, ②중국 1,927개, ③터키 1,882개, ④카자흐 1,067개, ⑤한국 896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8위/186(2021)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40위/180(2021)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²)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1)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48.5	26.3	3.6
2	안디잔주	4.3	3,253.5	43.8	6.0
3	부하라주	40.2	1,976.8	38.7	5.3
4	지작주	21.2	1,443.4	23.3	3.2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08.3	43.8	6.0
6	나보이주	111.1	1,033.9	59.4	8.1
7	나망간주	7.4	2,931.1	34.5	4.7
8	사마르칸트주	16.8	4,031.3	53.7	7.3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743.2	30.1	4.1
10	시르다리아주	4.3	878.6	15.6	2.1
11	타슈켄트주	15.2	2,941.6	82.1	11.2
12	페르가나주	6.8	3,896.4	47.3	6.4
13	호레즘주	6.1	1,924.2	26.9	3.7
14	타슈켄트시	0.3	2,860.5	121.8	16.6